

2026 글로벌 탈런트 페어 개막식 축하

오늘 “2026년 글로벌 탈런트 페어”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청년 여러분, 기업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산업부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신 김영훈 노동부 장관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트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국제교육원을 비롯해 이번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관계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꿈과 희망을 품고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 여러분을 직접 만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탈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는 산업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한민국 최대의 청년-기업 연결 플랫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36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해 개별면접, 취업 컨설팅, 잡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여러분과 뜻깊은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품어온 취업의 꿈을 이루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더욱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청년 여러분과 기업인 여러분께 각각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청년에게 드리는 세 가지 말씀 >

먼저,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틀’에 갇히지 말고 ‘틈’을 찾아내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정해 준 스펙과 기준에 나 자신을 맞추기보다,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나만이 채울 수 있는 ‘빈틈’, 즉, ‘독창적인 기회’를 포착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 실패와 다양한 경험을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실패는 주저앉는 이유가 아니라, 더 단단한 근육을 키워주는 예방접종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회자된 바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르다 보면 마음이 좀 꺾이고, 쏘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마음“입니다. 꺾여도 다시 일어서는 그 끈기가 여러분을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적인 매력과 포용력’을 갖추도록 노력합시다.

AI가 일상화될수록,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량, 호기심과 집요함,

책임감과 협업 능력이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와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면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포용적 태도야말로 여러분 인생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 기업인에게 드리는 세 가지 말씀 >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앞서 청년들에게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꺾·그·마”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업인들의 어깨도 참 무거우실 줄로 압니다.

이야기에 앞서 가벼운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3대 조건이 '연봉·워라벨·복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인들이 청년들에게 바라는 인재의 3대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야근·주말 출근·애사심'이라고 합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그렇지만, 이 거대한 간극을 좁히는 기업만이 최고의 인재를 생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격차를 줄이고 미래를 이끌어 갈 기업인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스펙이 아닌 '성장 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단편적인 경력이나 성적표만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평가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고, 위기를 돌파할 ‘배움의 의지’를 가진 인재를 알아보는 기업인들의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다양성과 포용성이 살아 숨 쉬는 조직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서로 다른 아이디어가 창조적으로 융합되는 매력적인 기업 환경이 인재를 몰려들게 합니다.

셋째, 인재를 ‘비용’이 아닌 ‘가장 확실한 미래 자산’으로 대우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의 요구를 단순한 비용이나 요구사항으로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조직 문화, 청년들과 함께 미래를 그리는 CEO가 있어, 청년들이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기업의 경쟁력도 완성될 것입니다.

< 정부 정책 방향 >

정부는 청년과 기업이 더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이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넓히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고용 지원을 넘어 글로벌 역량 강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AI,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해외 취업·연수·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해 대한민국 청년이 글로벌 기업과 세계 시장에서 당당하게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기업이 사람에 투자할수록 더 과감히 그 기업에 지원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청년 채용과 인재 육성에 적극적인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규제 혁신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투자, 재교육과 재훈련 프로그램, 지방인재 육성 등을 통해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일자리는 결국 강한 산업에서 나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산업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제조 AI 전환, M.AX를 통해 우리 산업을 청년들이 가고 싶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고, 원전, 방산, 첨단 제조업 등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년이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나라, 기업이 인재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기업에는 미래를 함께할 인재를 만나는 기회의 장이 되고, 청년들에게는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일자리 박람회, ‘2026 글로벌 토틀런트 페어’의 성공적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열렬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